

1998 치과계 전망

# 초중고 교과서에 치과관련 기초교육 확대



이사 장계순

호랑이가 그려진 98년도 새해 달력을 넘기면서 이제야 숨을 돌려 지난 25년간 치과 의사로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일, 즉 초중고 교과서에 치과영역에 대한 기초지식을 심는 일로 나머지 절반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어...

이사직을 맡고 임기의 절반은 1백미터 달리기 선수처럼 전력달리기로 제85차 세계치과의사연맹 서울총회를 치르느라 지나갔습니다. 호랑이가 그려진 98년도 새해 달력을 넘기면서 이제야 숨을 돌려 지난 25년간 치과의사로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일, 즉 초중고 교과서에 치과영역에 대한 기초지식을 심는 일로 나머지 절반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현재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치과영역에 대한 사항은 모두 합쳐 체육교과서에 실린 반 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나마 체육은 교과서 중심의 수업방식 과목이 아니고 실기 중심이라서 교과서에 실린 정보도 학생들에게 전달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학졸업을 하고 부모가 되어도 제1대구치가 유치가 빠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6세에 맹출되는 영구치라는 기초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또 구강발달에 출생 직후부터의 수유방법이나 자세, 식생활 습관 그 모든 것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잠투정이 심한 아이에게 우유나 요구르트를 물려 채워 광범위한 치아 우식과 부정교합을 초래한 사례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린이 환자와 그 부모의 육아에서 차지하는 치과영역의 관심과 부담에 비해 치과 기초지식을 습득할 기회는 적어 보입니다. 교과서에 무언가를 새로

수록한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자료들의 수집과 선별도 중요하지만 이에 접촉해 본 바로는 특정집단의 이익 사항으로 지레 간주해 미리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일도, 또 정부가 바뀌는 시점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는 일도 현재로는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이 훨씬 많아 보이는 일을, 예산도 인원도 없는 무임소이사로서 목표로 하는 것이 너무 야무진 꿈이 아닌가도 싶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지 않습니다.

작년 소해에는 소처럼 일했으니 올해는 호랑이의 기상을 빌어 꼭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결국 일반대중들의 올바른 치과영역에 대한 이해가 치과계 전체 발전에 기여할 것이기에...

